

09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25
vol. 290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Timeless Autumn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Flowerlace
Clip pendant



Hermès, drawing on your mind



loropiana.com



 *Loro Piana*

Contents

SEPTEMBER 2025 / ISSUE.290

- 10_SELECTION 1** 원드브레이커와 경쾌한 스커트, 가을 무드를 더해줄 스니커즈와 토트백으로 완성한 에너제틱한 스타일.
- 11_SUBTLE SPACE** 덜어내고 비워 형태적 조형미를 강조한 오픈워크 링 8.
- 12_SELECTION 2** 브라운과 카키, 베이지 등 초기을 컬러 팔레트로 물든 데일리 스포티룩.
- 13_SMALLER IS BETTER** 작아졌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30mm대 워치 셀렉션.
- 14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6_‘장터’를 넘어서 문화도시의 ‘작은 판’으로서의 플랫폼** 이제 4년 차를 맞이해 내년이면 5년의 동행이 일단락되는 키아프리즈가 파트너십의 2라운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아트 페어 동맹이 불려온 의미 있는 변화와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경쟁 우위를 곱씹어본다.
- 18_응시로 시작하는 여성의 연대, 콤플렉스에 서 프라이드로 문학과 미술에서 여성의 서사와 연대가 두드러지는 요즈음, 정체성, 젠더, 인권 등을 다루며 ‘몸’을 응시하고 인간의 유한한 삶을 화상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가 키아프리즈 기간에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 19_EXHIBITION IN FOCUS** 소중한 책들처럼 곁에 두고 싶은 ‘another 예술을 소개하는 키아프리즈’ 기간에 열리는 현대미술가들의 비밀 기자 같은 전시가 예술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2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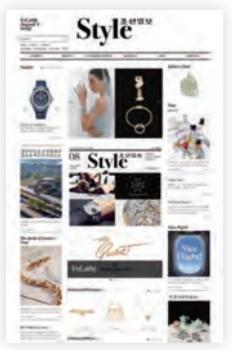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ти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티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티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올해 창립 150주년을 기념해 '하우스 오브 원더스(House of Wonders)'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오데마 피게. 더불어 또 하나의 신제품 위치인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옹'을 공개한다. 38mm 사이즈에 셀프와인딩 플라잉 투르비옹을 적용해 하이 캠플리케이션 위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문의 02-543-2999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chosun.com
패션 뷰티 디렉터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연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경 yjk@chosun.com 디자aisal 에디터 신정임 sj@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ns@chosun.com 이정희 j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쇄·제판 덕일 인쇄 타라티피에스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페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10

32



MUHE

Floral Design
Handcrafted Flower Vase Collection
32, Hyoryeong-ro, Seocho-gu, Seoul
www.mu-he.com
instagram@muhe.official

jewerly
for
your
home



랄프 로렌 컬렉션 02-3467-6560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퓨잡 02-6905-3708 펜디 02-544-1925
반클리프 아벨 1877-4128 위크엔드 막스마라
1661-4841 몽블랑 1877-5408 루이 비통
02-3432-1854 포렐리토 0030-8321-0441
롤루레온 02-6203-0199 월슨 02-515-1318
블랑팡 02-3479-1833 블렌티노 02-2015-
4655 첼로몬스터 1600-2126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트레이디셔널 매뉴얼 와인딩 시릴 270주년 기념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메종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기하학적 패턴을 새긴 은은한 실버 톤 다이얼이 매력적. 지름 38mm 케이스에 950 플래티늄 소재로 완성하고 매뉴팩처 칼리버 4400 AS/270을 장착했다. 5천7백만원. 문의 1877-4306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35 기존 인제니어 모델의 케이스 사이즈를 35mm로 축소했다. 그 과정에서 모든 요소, 비율, 마감을 완벽하게 구현해 놀라움을 자아낸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그리드 패턴 다이얼로 마무리해 세련된 느낌을 자아내는 매력적인 피스. 47110 칼리버로 구동한다. 1천4백80만원. 문의 1877-4315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다이얼의 둥근 모서리, 곡선형 혼, 스크루, 실버 태양 광선 모티브 다이얼 등 기존 산토스 워치가 지난 요소를 담아 스몰 사이즈로 출시한 버전. 퀴즈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9백만원대. 문의 1877-4326

오메가 씨마스터 아이라 터라 150M 30MM 브랜드의 유서 깊은 해양 탐험 전통을 기념하는 아이코닉한 타임피스가 30mm 사이즈로 재탄생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라벤더 컬러 태양광 패턴의 흰색 레어 다이얼을 매치해 시선을 끈다. 9백만원대. 문의 02-6905-3301

샤넬 워치 J12 블루 칼리버 12.2 33MM 무광 느낌이 나는 사별민의 독특한 애트 블루 세라마이드로 보인다. 베젤에는 같은 소재의 바게트 것 세라믹을 적용하고 다이아몬드 인디케이터로 마무리해 포인트를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프로스티드 글로브 세포인팅 마치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듯 번쩍임을 극대화한 프로스티드 글로드로 마감한 34mm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이 특징. 다이얼 역시 크리스탈 샌드 마감으로 통일감을 부여했다. 자동식 칼리버 5800으로 구동한다. 1백3만원. 문의 02-543-2999

블랑팡 피프티 패밀즈 오토매틱 브랜드의 DNA이자 다이얼 위치의 표본인 모델로 38.2mm 케이스 사이즈로 선보인다. 다른 위치에 비해 다소 큰 감이 없지 않지만 이 모델을 30mm대로 줄인 것은 나름 파격적이다. 절은 남성의 손목이나 여성의 손목에도 인장적인 착용감을 제공한다. 2천6백64만원. 문의 02-3479-1833 에디터 성정민



Smaller is Better

작아졌지만 갖출 것은 다 갖춘 30mm대 워치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INSIGHT



Rebirth of Big Bang

올해 위블로는 브랜드를 알리게 된 가장 큰 시장점인 빅뱅 컬렉션 탄생 20주년을 맞아 역사 속에서 깨나온 빅뱅 오리지널과 현재의 빅뱅 유니코를 결합한 다섯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였다. 그중 빅뱅 20주년 기념 풀 매트 골드는 위블로가 스크래치에 취약한 골드를 보강해 만든 새로운 골드 소재로 완성한 피스. 일반 멜로 골드와 다른 빛깔을 띠는 케이스는 43mm로 시원한 가독성을 자랑한다. 다이얼은 격자무늬로 각인한 새틴 마감 카본 효과를 주어 독특한 느낌을 배가했다. 배젤에는 아이코닉한 6개의 스크루로 마무리해 위블로의 유산을 보여준다.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MHUB1280 20주년 유니코 매뉴팩처 셀프와인딩 크로노그래프로 구동한다. 문의 02-540-1356



Promise You

영원한 사랑, 그리고 변지 않는 마음을 표현한 그라프의 '브라이덜 주얼리 컬렉션'. 다이아몬드에 진심인 브랜드인 만큼 최고급 다이아몬드를 직접 선별하는 것은 물론, 스톤 본연의 광채와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숙련된 장인들이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완성한다. 그중에서도 독특한 실루엣을 자랑하는 에메랄드 커브 모이스 앤제이지먼트 링, 다이아몬드를 파페 세팅한 밴드에 큐빅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프리미스 라운드 앤제이지먼트 링'을 추천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50-2320



Very Charming

아이코닉한 럭셔리 백의 감성을 그대로 담은 마이크로 백 참.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스카이 블루 컬러로 가방에 화사하면서 귀여운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칼리페스티벌 백 참 4백 34만 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프라다의 라이클론 백팩을 미니어쳐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미니 아이콘 라이클론 백 참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0.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백을 오마주한 디자인의 가죽 백에 네이비 컬러 레터링과 핸들 장식이 특장인 LV 미니 쇼퍼 백 참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아이폰, 카드 등 작은 필수품을 수납하기에 좋은 클래식 미니 백 참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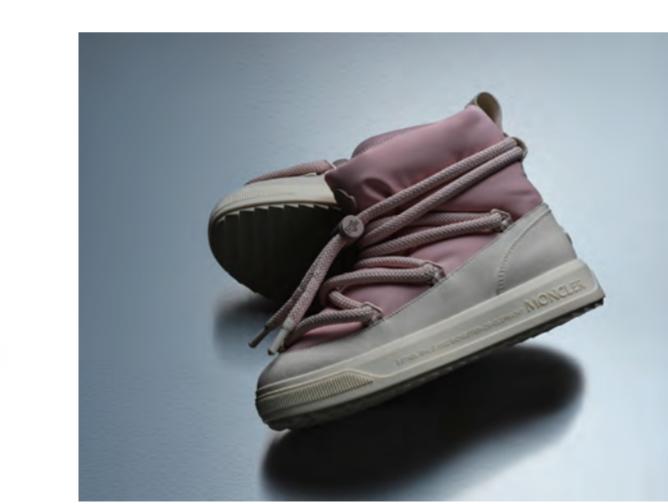
Jewelry for Your Home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지금, 무헤(MUHE)는 'Jewelry for Your Home' 캠페인을 통해 공간을 장식하는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한다. 간템파리리 글라스 웨어 브랜드 주(JU).의 베이스 컬렉션은 유려한 곡선과 깊이 있는 색감으로 어떤 꽃이든 인정감 있게 감싸며 오브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무헤는 주(JU).의 작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소개하는 리테일러로, 2백여 난의 헤리티지를 아이온 오스트리아 크리스탈러리 로브마이어(LOBMEYR)의 영롱한 화병 역시 무헤에서 만나볼 수 있다. 다가오는 명절과 공연, 행사 시즌을 앞두고 호흡란과 함께 선물한다면 한층 풍경 있는 기프트가 될 것이다. 꽃과 우리 오브제의 조화로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주는 무헤의 소품 예약 방문 구매 시 소정의 혜택도 마련되어 있으니,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하고 싶다면 지금이 좋은 기회다. 문의 www.mu-he.com



The New Touch of Perfection

메이크업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점 없이 매끈한 피부다. 샤넬 뷰티가 새롭게 선보인 '뿌드로 위너베르셀 온더고 루스 파우더'는 언제 어디서나 원벽한 피부를 연출해줄 수 있어 메이크업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려준다. 특히 실크 베일처럼 가볍게 밀착되어 유분기를 정돈하고 피부결을 매끈하게 다듬으며, 투명하게 빛나는 자연스러운 피부를 선사한다. 이번 신제품은 '온더고(On-the-Go)'라는 이름 그대로, 휴대성을 극대화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원하는 인증 커버력을 조절할 수 있는 퍼프와 거울이 내장된 휴대용 디자인은 이동 중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뿌드로 위너베르셀 온더고 루스 파우더로 결점 없이 매끈하고 화사한 피부 자신감을 경험해보자. 6g, 9만2천원. 문의 080-805-9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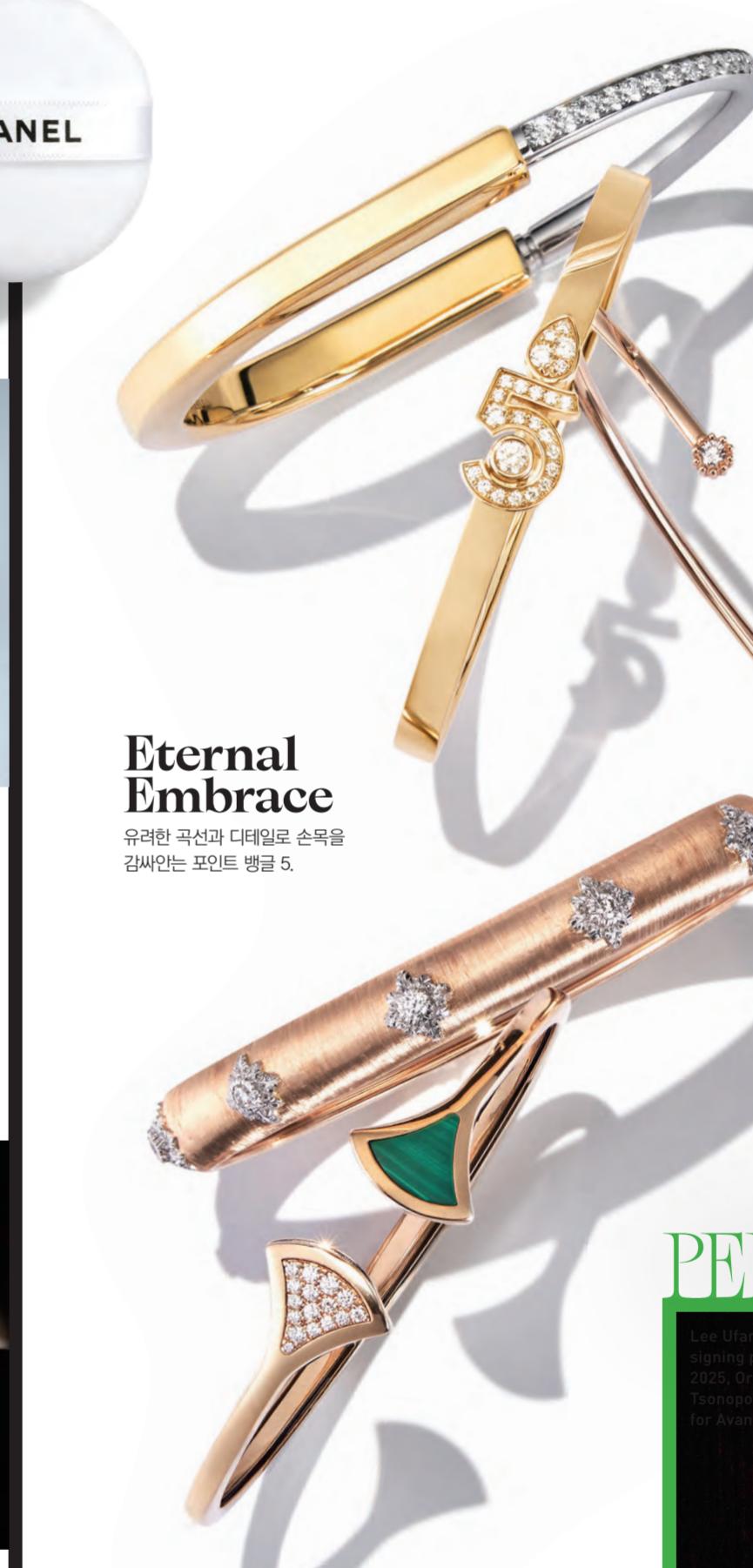
Only For Winter

몽클레르 '알티브 미드(Altive Mid)'는 아웃도어 신발을 데일리용으로 신을 수 있게 특별히 제작한 거울 부츠다. 스노 부츠에서 영감받아 보온성이 뛰어나며 곳곳에 기능적인 디테일이 가득하다. 패딩 나일론 어퍼,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에 탁월한 비브람 이웃솔, 면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슈즈 레이스 등을 갖췄다. 컬러 역시 뉴트럴 베이지, 페일 로즈, 키wi, 블랙으로 디자로운 면 더 자세한 내용은 몽클레르 매장 및 공식 웹사이트(moncler.com)에서 확인해보자.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794



Another Level

올해로 창립 150주년을 맞이한 오데마 피게. 늘 창의적인 미학을 기반으로 한 컴플리케이션 위치로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이 위치 예술은 오랜 유산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위치를 공개한다. 바로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셀프와인딩 플레이팅 투르비옹. 은은한 샌드 컬러의 18K 골드로 완성했으며,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러그와 케이스 옆면 등에 조각형 메시에 우아함을 발산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예술 최초로 38mm 사이즈에 셀프와인딩 플레이팅 투르비옹을 적용한 것. 이는 정교한 미학과 최첨단 기능을 완벽하게 결합한 초박형 RD#3 무브먼트인 칼리버 2968을 장착했기에 가능했다. 이 차세대 소형 코드 11.59 바이 오데마 피게 컴플리케이션을 통해 오데마 피게는 워치메이킹 역사에 또 하나의 발자국을 남겼다. 문의 02-543-2999



Eternal Embrace

유려한 곡선과 디테일로 손목을 감싸는 포인트 뱅글 5.

"낮설지만 어느새 빠져든다" 정해진 좌석도, 시나리오도 없는 '몰입형(immerse) 시아터'라는 장르로 현대 공연 예술의 새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은 '(슬립노모어)(Sleep No More)'가 서울에서도 힘차게 관객들의 사랑을 하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비극 〈렉베스〉를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스타일의 서스펜스물로 재구성했다는 이 작품은 영국의 청작 집단 펍처드링크가 선보인 논어벌(non-verbal) 퍼포먼스로 런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뒤 뉴욕 (미국)과 상하이(중국)에 진출해 누적 2백65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서울 공연은 총무로 상정하는 옛 대한극장을 기초한 매기탄 호텔을 통째로(7층) 무대로 삼는데, 1930년대 스크로우드를 섬세하게 재현한 디제로운 공간을 다니며 자신만의 관람 여정을 만들 수 있다. 관객은 마스크를 쓴 채 배우를 따라가게 되는데, 1대 1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동선 선택에 따라 매번 여성이 달리지기로 재생림률이 높은 공연이기도 하다.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배우들의 숨결을 기다리거나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체험은 3시간의 긴 공연 시간을 어느새 소화하게 만든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우들을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면 절로 운동이 되므로 디아트 연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다. 체력을 풀수 흥미로이 <https://hemkithanhotel.com> 글 고성연

PERFORMANCE

Lee Ufan
signing prints,
2025, Dresti
Tsionopoulos
for Avant Arte



슬립노모어(Sleep No More), 서울 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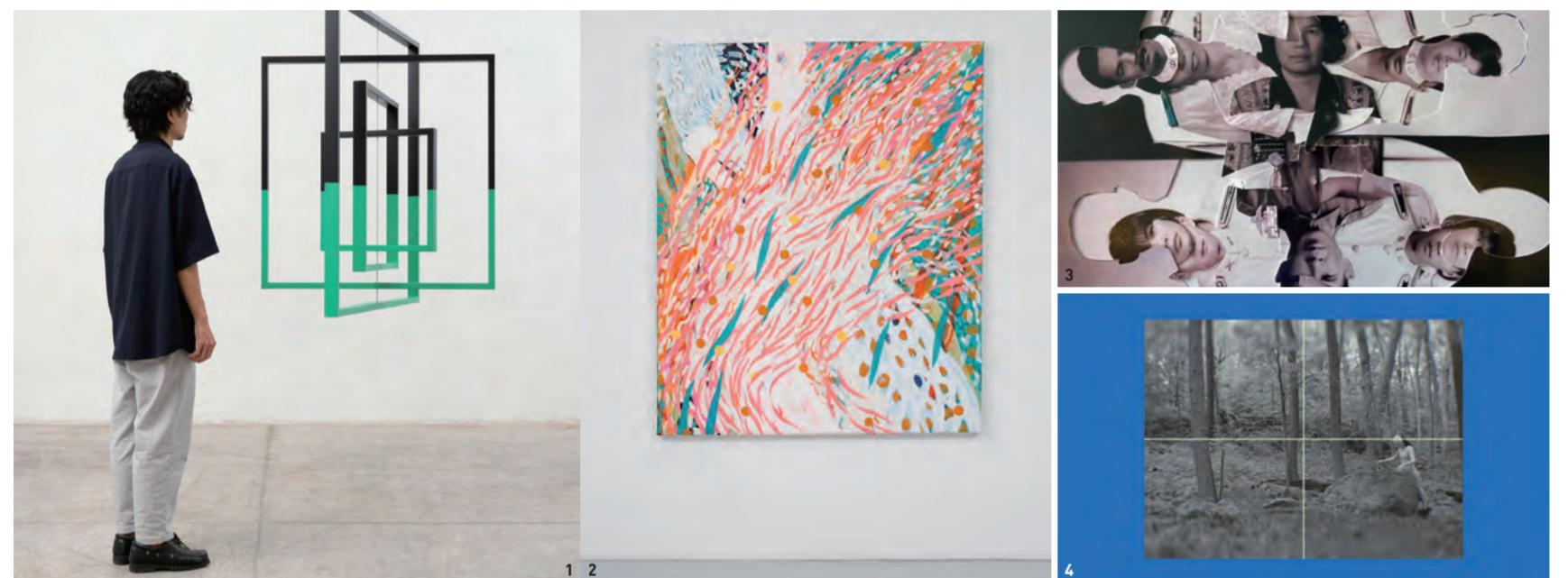
하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비극 〈렉베스〉를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스타일의 서스펜스물로 재구성했다는 이 작품은 영국의 청작 집단 펍처드링크가 선보인 논어벌(non-verbal) 퍼포먼스로 런웨이에서 첫선을 보인 뒤 뉴욕 (미국)과 상하이(중국)에 진출해 누적 2백65만 명 규모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서울 공연은 총무로 상정하는 옛 대한극장을 기초한 매기탄 호텔을 통째로(7층) 무대로 삼는데, 1930년대 스크로우드를 섬세하게 재현한 디제로운 공간을 다니며 자신만의 관람 여정을 만들 수 있다. 관객은 마스크를 쓴 채 배우를 따라가게 되는데, 1대 1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한다. 동선 선택에 따라 매번 여성이 달리지기로 재생림률이 높은 공연이기도 하다. 수동적 관람이 아니라 배우들의 숨결을 기다리거나 느낄 수 있는 몰입형 체험은 3시간의 긴 공연 시간을 어느새 소화하게 만든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배우들을 정신없이 따라다니다 보면 절로 운동이 되므로 디아트 연극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다. 체력을 풀수 흥미로이 <https://hemkithanhotel.com> 글 고성연

(위부터 차례대로) 티파니 티파니 럭 뱅글 18K 멜로 및 화이트 골드 소재에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독특한 디자인! 특징,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샤넬 파인 주얼리 이태일 N5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숫자 5를 형상화한 모티브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드 뱅 브레이슬릿 행운의 상장을 나타내는 아이코닉한 심벌이 조화를 이룬다. 가격 미정. 문의 02-3480-0104 부路桥티 마크리 봄베 브레이슬릿 작은 별 모티브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2천7백만원대. 문의 02-6905-3490 불가리 디바스 드림 브레이슬릿 말리카이트 장식과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표현한 부채 모티브 뱅글 1천2백만원. 문의 02-6105-2120 포토그래퍼 윤지영 에디터 신정임



'장터'를 넘어선 문화도시의 '작은 판'으로서의 플랫폼

지구에 길고도 짧은 그늘을 드리웠던 팬데믹이 마침내 수그러들면서 엔데믹으로의 전환이 이뤄진 2022년, 세계적인 아트 페어 브랜드 프리즈(Frieze)의 아시아 시장 진출은 단연 글로벌 미술계를 들썩이게 한 행보였다. 지금과 달리 전반적으로 미술 시장이 뜨겁게 타올랐고, 이미 팬데믹 전부터 아시아 시장의 '문화 예술 허브'라는 타이틀을 둘러싸고 여러 도시가 상당히 공을 들여왔기에 프리즈의 아시아 허브가 된 서울은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프리즈 효과'를 향한 기대감도 부풀었지만, 진출 방식이 한국 미술 시장을 대표하는 아트 페어인 키아프(Kiaf Seoul)와의 공동 개최였기에 불멘소리도 불거졌다. 사실 영국 런던에서 시작한(2003년) 프리즈보다 오래된 업력을 지닌 키아프(2001년)지만 '브랜드 파워'에서 밀릴 게 뻔한데, 어째서 안방을 순순히 내주느냐는 것이었다. 이제 4년 차를 맞이해 내년이면 5년의 동행이 일단락되는 '키아프리즈'가 아직 파트너십의 2라운드를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간 '따로 또 같이' 방식의 아트 페어 동맹이 불리운 의미 있는 변화와 플랫폼으로서의 지속성 있는 경쟁 우위를 곱씹어본다.



플랫폼에 참가하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
—〈플랫폼 전략〉(하리노 아쓰시 칼, 앤드레이 학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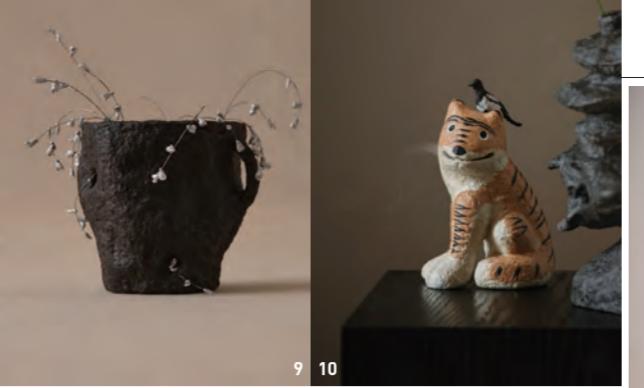
언젠가 홍콩에서 열린 아트 바젤(Art Basel Hong Kong) 행사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목적지 근처에서 교통 체증이 우난히 심해지자 백시 기사가 내뱉은 푸념을 접한 기억이 있다. "대체 이 글로벌 아트 페어라는 건 누가 그렇게 관심을 갖길래. 대단한 파티나 콘서트처럼 난리법석을 떠는 거냐?"던 그는 소시민들이 꾸려가는 평범한 일상과의 간극을 꼬집었다. 당연히 아트 페어는 파티도, 영화제도, 콘서트도 아닌, 현대 미술을 주 상품으로 내놓는 장터(marketplace)다. 어찌 보면 그림 한 점, 조각 한 점 사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온갖 미디어에서 떠들어대고, 하늘길을 건너 찾아오는 다국적 손님(컬렉터)들을 유혹하고, 대단한 구경거리라도 등장한 듯 비단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구경꾼으로서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아내는 걸까. 일찍이 발터 베나민 같은 명만한 학자가 지적했듯 이 같은 풍경은 소비문화에 휩쓸린 도시가 빚어내는 씁쓸한 신화의 단면일 수도, '그들만의 리그'일 수도 있지만, 그저 경제적인 득실만 따지면 그 뿐인 단순한 비즈니스의 장(場)은 아니다. 문화예술 생태계만 놓고 보면 다분히 건조하게 비쳐졌던 홍콩의 소프트 파워와 이미지를 확연히 바꿔놓은 핵심적 동력, 그리고 필자에게도 동양과 서양, 그리고 자본주의와 시민주의의 결합으로 특수한 정체성을 띤 이 도시의 묘한 매력을 을 유심히 들여다보게 된 계기 역시 바로 글로벌 아트 페어였다. 문화도시로서의 짜임새와 에너지를 끌어올려 다른 차원의 '판'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되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다름 아니다.

#플랫폼 시대의 무한 경쟁과 문화도시에의 선망
그 전환의 파도가 팬데믹의 스러짐과 발맞춰 우리네 수도 서울에도 찾아왔다. 2013년 스위스 MCH 그룹이 홍콩 아트 페어를 인수해 아트 바젤 홍콩으로 거듭나게 했던 데 반해, 키아프(Kiaf)와 프리즈(Frieze)는 '동맹'을 맺었다. 각자의 플랫폼을 유지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지만 개최 시기(9월 초)와 무대(코엑스)를 함께하고 공동

1 울가를 프리즈 서울에서 처음 참여하는 스페イン 갤러리 알바란 부르데(Albarán Bourdais)에서 출품하는 멕시코 작가 호세 달비라(José Dávila)의 작품 'Homage to the Square'(2023).

2 Jérémie Demester, 'FTW XVII'(2025)알바란 부르데 출품작. 3 SAC 갤러리(태국)가 프리즈 서울에서 선보이는 프라피 지와랑산(Prapap Jiwarangsang)의 작업 '기생 가족 no.3(Parasite Family no.3)(2024). 4 이탈리아 릭서리 브로드 브리거 3년 연속 공식 후원하는 상, '프리즈 서울 아티스트 어워드'의 올해 수상자인 임영주의 3채널 영상 설치 작품 'Calmng Signal'(2023/2025). 이미지 제공_불가리 5 국제갤러리의 키아프 출품작인 애니시 커푸어의 'Organic Green to Clear'(2016) © Anish Kapoor. All rights reserved DACS/SACK, 2025 Photo by Anish Kapoor Studio 이미지 제공_국제갤러리 6 갤러리현대의 키아프 출품작인 이슬기 작가의 'Y'(2011~2018). Courtesy the artist and Gallery Hyundai. 7 탕 컨템포리의 키아프 출품작인 타이드(Tide)의 'Drifter 1(2025). 8 주목할 만한 차세대 작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5 Kiaf Highlights' 최종 10인에 선정된 김아리 작가(김리아갤러리)의 작품 'Untitled-Connection #5.' 9-12 3, 7, 8 이미지 제공_알바란 부르데, 프리즈 서울, 탕 컨템포리, Kiaf SEOUL 순서대로



바 MANGO(Microsoft, Amazon, Netflix, Google, OpenAI)가 누리듯 다수의 클릭과 구독으로 힘입은 엄청난 네트워크 효과를 기대할 만한 비즈니스 영역은 아니다. 온라인 거래 규모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물리적 공간과 제품이 필수이며, 워낙 관계성이 중시되며 '미술 권리'라 할 정도로 큰 손의 비중이 큰 영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시의 세계'에서 선명되는 문화도시라는 위상과 긴밀히 연결되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브랜드 파워를 지닌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컬렉터 숫자가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포용력이라는 맥락에서 이미 잠재 수요가 꿈틀거리고 있던 도시가 만났을 때 어떤 파급효과를 거두는지 우리는 '키아프리즈' 첫해부터 목격했다. 내로라하는 럭셔리 브랜드를 위시해 패션, 자동차, 그 밖에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브랜드의 후원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키아프리즈 주간을 전후로 동네별로 펼쳐지는 수백에 개의 대체로운 행사로 문화도시의 요건인 자발적 예술의 장의 면모를 보여준다. 올해도 열리는 한남 나이트(9. 2), 청담 나이트(9. 3), 삼청 나이트(9. 4) 같은 유기적 행사는 그 역동성에 놀라는 해외 관람객들만이 아니라 분명 우리에게도 즐거운 발견'의 장이다.



9, 10 '2025 예술 × 사설' 프로젝트에 선정된 올해의 장인과 젊은 예술인의 협작품. 재단법인 예술이 2022년부터 4년째 한국 공예 가치를 알리고 증진하기 위해 사설과 함께 펼치는 프로젝트. 한국 전통 속 '엄마이클링' 격인 지하공예의 대가 박갑순(부령유산)과 금속공예가 이윤정이 각자의 작품은 물론 종이와 금속이 모여 어우러진 협작품들도 양태로 디자인과 협업한 전시 (자연, 즉 스스로 그려온)에서 선보인다. 서울 북촌 예술의 전시 공간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이미지 제공_예술 × 사설 11 이드리안 바이어로하스, '상상의 종말 VI', 2024, 482×420×260cm스위스 바젤 바이얼러 재단 미술관 설치 모습, by Jörg Baumann 대구모 경주 특정적 설치 작업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작가 아드리안 바이어로하스(b. 1980)의 첫 개인전이 아트선재미에서 열린다(2025. 9. 3~2026. 2. 1).

12 양이연, 'Don't be grime', 2025, Oil on canvas, 97×97cm.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디자인(DIA) 컨템포리에에서 열리는 양이연 작가의 개인전 'The House That My Mother Built' 출품작. '방'과 '집'이라는 상징적 공간을 회화적으로 탐색한 신작 15점을 선보인다. 이미지 제공_ DIA

1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 중인 김창열(1929~2021) 작가 회고전 풍경. 키아프리즈 기간에 맞춰 개막한 이 회고전은 작가를 상징하는 '물방울' 회화의 근원과 전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로 1백20여 점을 선보인다. 뉴욕 시기의 회화 등을 포함해 미공개 작품 31점이 포함돼 있다. 14 프리즈에서 서울 도심(악수동)의 주택을 개조해 연중 운영하는 전시 공간으로 마련한 '프리즈 하우스 서울' 외관(렌더링). 세계적인 건축 스튜디오 사나(SANAA)의 장소 특정적 설치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미지 제공_프리즈 서울 15 미국 뉴욕 소호와 첼시의 전성 시대를 열었던 유서 깊은 물리 쿠퍼 갤러리의 팝업 전시 공간(6월 말). 올해는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지 않지만 한국 애호가들과 보다 친밀한 접점을 만들고자 아름지기재단에서 '토크 & 전시' 행사를 꾸렸다. Photo by 고성연

사들도 '프리즈 위크'라고 부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물론 아트 페어도 수명을 장담할 수 없기에, 키아프리즈 같은 표현은 프리즈의 예시 혹은 각자 생의 길을 갈 때 바로 없어질 수식어지만, 적어도 지금은 창조적 시너지를 낼 공동 브랜딩을 유기적으로 펼치고 자체 콘텐츠를 풍부하고 견고하게 다져나갈 전략적 고민과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가까운 이웃 도시의 예를 보자면 일본에는 대중적인 슈퍼 브랜드와 브랜드 파워를 지닌 거장이 꽤 있지만, 현대미술 시장은 외려 외면당해왔다고 할 정도로 존재감이 부족했는데, 팬데믹 시기에 아트 위크 도쿄라는 플랫폼이 등장했고, 아트 페어계의 최강 브랜드 아트 바젤의 지원을 받으면서 점차 글로벌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물론 아트 바젤이 들어가기에는 '시장'이 보이지 않은 텐데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동시대 미술 위주로 짜임새 있는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다.

#동시대성이 흐르는 '글로컬'한 놀이터를 향해

물론 키아프의 외연과 내연도 성장세를 타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일단 규모를 보자면 미술 시장 호황기였던 2021년 단독 개최했을 당시 참여 갤러리가 1백64개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2백6 개까지 늘어났다. 올해는 양적 성장이 아닌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향성 아래 20여개 국 1백75개 갤러리가 참여한다(프리즈 서울은 작년과 비슷한 1백20여 개 수준을 유지한다). 둘을 합치면 세계 최강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의 원조인 바젤 페어(ABB)와 맞먹는 규모다(위성 페어를 제외한 기준으로). '글로컬'의 속성을 점차 떠나가고 있기도 하다. 키아프 참여 갤러리들 중 3분의 1가까이(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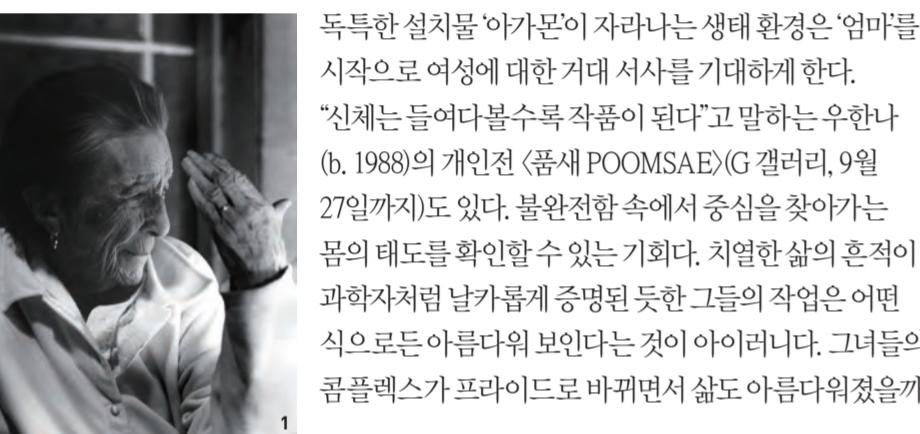


응시로 시작하는 여성의 연대, 콤플렉스에서 프라이드로

한줄 한줄 치열하게 퀘어가는 '여성들의 서사와 연대'는 어디까지 이어질까? 문학과 미술에서 여성의 서사와 연대가 두드러지는 요즈음, 정체성, 젠더, 인권 등을 다루며 '몸'을 응시하고 인간의 유한한 삶을 회상하는 여성 작가들의 전시가 '키아프리즈' 기간에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1911~2010)의 대규모 개인전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호암미술관, 2026년 1월 4일까지),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이불(b. 1964) 작가의 큰 흐름을 조망하는 <이불: 1998년 이후>(리움, 2025. 9. 4~2026. 1. 4),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시간을 사유하는 치하루 시오타(b. 1972)의 개인전 <Return to Earth>도 진행 중이다(가나아트센터, 9월 7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박스에서는 'MMCA × LG OLED' 프로젝트의 첫 번째 주인공 추수(b. 1992)의 전시 <아가문 대백과: 외부 유출본>이 열리고 있는데(2026년 2월 1일까지), 우뭇가사리 위에 이끼를 길러내는 독특한 설치물 '아가문'이 자라나는 생태 환경은 '엄마'를 시작으로 여성에 대한 거대 서사를 기대하게 한다.

"신체는 들여다볼 수록 작품이 된다"고 말하는 우한나(b. 1988)의 개인전 <품새 POOMSAE>(G 갤러리, 9월 27일까지)도 있다. 불완전함 속에서 중심을 찾아가는 몸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칠현의 삶의 흔적(작가)과 과학자처럼 날카롭게 증명된 듯한 그들의 작업은 어떤 식으로든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이 아이러니다. 그녀들의 콤플렉스가 프라이드로 바뀌면서 삶도 아름다워졌을까?



1



2

"매일 원가 있도록 하라, 열쇠를 잊거나 시간을 하비해도 그 낭패감을 잘 견뎌라. 잃는 기술을 숙달하길 어렵지 않다. 그러고는 더 많이, 더 빨리 잃는 법을 억하라. 장소든, 이름이든, 여행하려 했던 곳이든 상관없다. 그런 건 아무리 일어도 재앙이 아니다." 엘리자베스 비숍의 '하나의 기술'에 나오는 시구(詩句)처럼, 매일 무언가를 버리거나 잊으면서도 시간은 '회상'하고 싶어지게 하는 예술 작품이 있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우리는 누군가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감정의 기록은 현재를 사는 데 도움을 주니까. 하지만 옛날을 그리워하는 생산성 없는 노슬프지어와는 구분하고 싶다. 나는 허무주의자가 아닌 실존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유년기의 기억과 트라우마를 출발점으로 삼은 루이즈 부르주아처럼 자신의 한생에 기억을 되살리며 작업하는 여성 작가들이 있다. 그녀들의 작품 앞에 서면 자연스레 기억을 되돌리고 싶어진다. 무척 예뻐 보이는 작품은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전복이 숨어 있다. 게다가 그녀들은 작품에 대한 설명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 같은 것도 밝히지 않는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한 영상에서 질문자의 대답에 "아,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를 연발하며 손바닥만 벼비었고, 이불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이야기하는 어느 강연 프로그램에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퍼포먼스만 했다. 그녀들은 그저 어딘가에서 쉴 새 없이 갈등하고 만들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현자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고리를 회상하며 '응시'한다. '응시'는 사유가 따르게 마련이다. '몸'을 응시하며 보편적인 것들의 위선과 위장을 들춰내는 작업은 일상지만 혁신적인 미적 감각을 타고난 그녀들은 다양한 매체를 가로지르며 삶과 죽음, 미와 죽, 세속과 신성, 실태와 꿈을 이야기한다. 어떤 식으로든 몸의 회복과 해방을 시도하면서 신체를 깊은 주변 환경에 주목한다.



6



7



3

4

5

내 것이 아닌 열망을 떠나보내는 회상

루이즈 부르주아는 한 평생 과거를 '응시'했다. 그녀의 내면 세계 까지 보이는 전시 <루이즈 부르주아: 덧없고 영원한>은 한국에서 25년 만에 열리는 작가의 대규모 개인전. 평론가 루시 리파드는 그녀에 대해 "독립과 의존, 포용과 배척, 공격성과 연약함, 질서와 혼돈 사이에 물두한다"고 평했다. 한 인간이, 한 여성이 떳떳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서사가 그녀의 작품에 담겨 있는 듯 하다. 사랑에 대한 회상은 상실 대상에 대한 애도 작업인 것처럼 그녀의 회상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슬픔으로 다가온다. 루이즈 부르주아는 생각나게 하는 치하루 시오타는 자신의 '몸'에 좀 더 집중하는 작가다. 두 번의 암 투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직접 경험한 그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탐구를 시작했는데 '삶'이라는 재료로 몸과 닮은 흔적을 찾는다. "정기들과 나라는 존재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지 못했는데, 아프고 나서 살아온 무엇일까 의문을 가졌다. 신장 이식을 받은 친구가 있는데, 이식받은 후 갑자기 생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음식 취향까지 정기로 바뀌는 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디까지 나이고 어디까지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였다." 기자 간담회에서 담담하게 소박한 이야기를 전한 그녀의 대형 설치 작품 'Return to Earth'는 전시장 전경에서 바닥까지 검은 실이 얹혀 내려오며 삶과 무한함에 대한 작가의 긴 이야기를 압축한다. 기계와 유기체의 아름다운 사이보그를 발표하며 유명해진 이불은 신체를 감싼 주변 환경을 이야기하며 담론을 거대하게 확장하는 중이다.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거나 그린란드에 온 것처럼 확장되는 설치 작업을 볼 때마다 다음 행보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작가. 그녀는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건 아직까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식으로 말이 안 되는 상상을 해야 확장이 될 텐데 말입니다. 즉 상상하는 모든 걸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녀는 자신이 생각한 모든 것이 실현되기에 슬프다고 말했다. 이불이라는 이름으로 놀림받던 어린 시절, 가정 환경도 그랬고 여러 면에서 남과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자유에 가까워지기 위해 작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완전히 부서뜨려 생기는 낙차 에너지가 있듯, 도저히 버틸 수 없을 때까지 몰고 갔다가 무너져 껍질만 남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뭘까' 궁금해서 아주 위험한 지경까지 끌고 가보는 걸 즐기는 사람. 작업할 때 있는 웃이 50벌쯤 된다는 이불 작가의 이번 전시는 사이보그, '아니그램', 노래방 연작 등부터 2010년대 이후 발전된 '취약할 의향'과 '파우' 연작, 가장 최근의 조각 작품을 아우른다. 우주 디큐멘터리 같은 작품 앞에서 명상을 하듯 아득한 기분에 휘싸일 것 같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6 이불 ©Lee Bul, 사진_윤경운 이미지 제공_호암재단 7 이불, '몽그랑례: 바위에 흐느끼다'(2005), ©Lee Bul 모리 미술관, 작품 제공_(Lee Bul: From Me, Belongs to You Only), 전시 모습, 모리 미술관, 도쿄, 2012, 사진_와타나베 오사무

6

7

5

Exhibition in Focus

어린 시절 우리에게 책으로 만든 '비밀 기지'가 있었던 것처럼 작가들에게도 자신의 서사가 담긴 아지트 속 이야기가 있다.

<읽는 인간>의 저자 오에 겐자부로는 평생의 보물 같은 책들을 회고했는데, 그는 책들과 삶을 함께 해왔다고 말했다. 그런 소중한 책들처럼 곁에 두고 싶은 'another 예술'이 있다. '키아프리즈' 기간에 열리는 현대미술가들의 비밀 기지 같은 전시가 예술 애호가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대의 불안을 표현한 배운한 작가의 전시 모습(2025).



옥승철 개인전 (프로토타입) 설치 모습, 롯데뮤지엄(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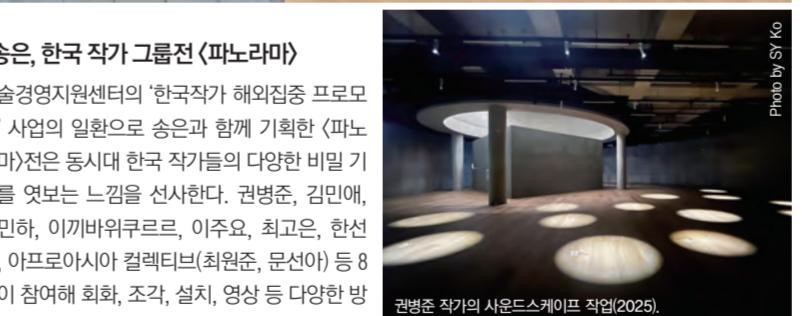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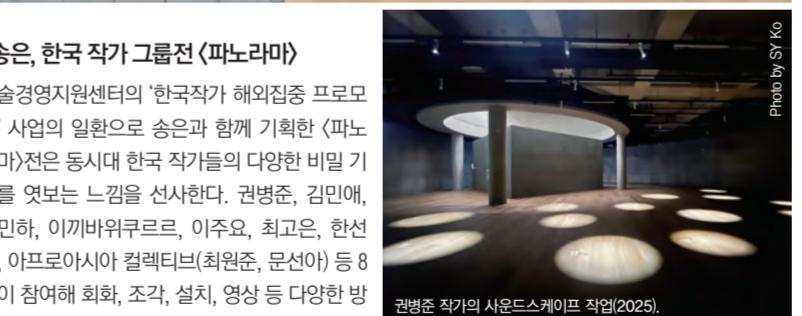
#롯데뮤지엄, 옥승철 개인전 <옥승철: 프로토타입(Prototype)>

반복되고 복제되는 얼굴은 가짜일까?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는 누구일까? 혹시 당신도 무한히 복제된 자아를 지닌 건 아닌가? 이 물음은 지속적으로 던져온 옥승철 작가(b. 1988년)는 뒷 빈 눈에 표정 없는 얼굴을 고집스럽게 사랑한다. 진위를 알 수 없는 똑같은 얼굴들이 3D 조각과 회화로 펼쳐지는데, 작가에게는 그저 '프로토타입-1', '프로토타입-2'일 뿐이다. 인물을 추출하고 레이어로 분리하는 디지털 작업 과정을 정교한 회화로 되살린 프로토타입은 완전한 소년도, 소녀도 아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티를 부여받기 힘든 존재 같지만, 이들이 현실을 살피기로 훨씬 더 솔직하다고 말해주는 것 같다. 스스로 '복제된 존재'라고 인정하기에 오히려 순수하달까. 사실 우리도 본인 없는 복제의 무한 증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전시 공간은 소프트웨어 유통 방식인 'ESD(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를 모델로 설계해 마치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차기운 가능공간으로 들어온 듯 연출했다. 만화나 영화, 게임 등에서 복제되고 변주되는 디지털 이미지가 주인공이기에 전시에 진입한 예술로 생각하기 힘들기도 하지만, 그의 손을 하나 하나 거친 '프로토타입'의 얼굴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는 존재다. 특히 3D로 만든 조각은 아프로디테의 몸이 질린 것처럼 거꾸로 톱 떨구져 있는데, 그리스 신전 어느 공간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작가는 메두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옥승철은 꾸준한 팬덤을 지닌 작가이기도 한데, 최근 <나의 충동구애 연대기>를 높은 영화평론가 김도훈의 가장 소중한 컬렉션 1위 작가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색상의 하나인 '크로마키 그린' 색의 프로토타입 조각이다.

전시명 <옥승철: 프로토타입(Prototype)> 전시 기간 10월 28일까지 홈페이지 www.lottemuseum.com



한선우 작가의 파편화된 신체와 인공 구조 뒤섞인 작품(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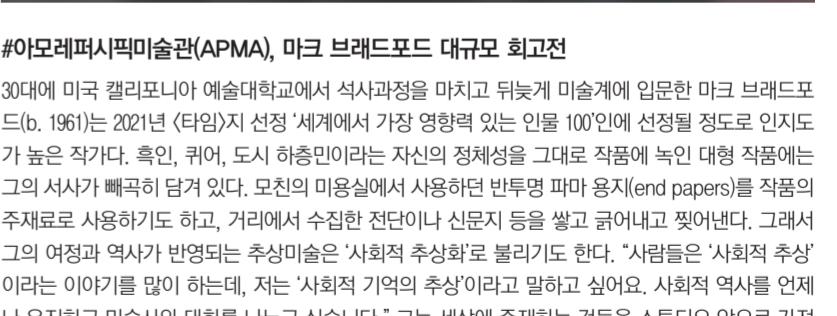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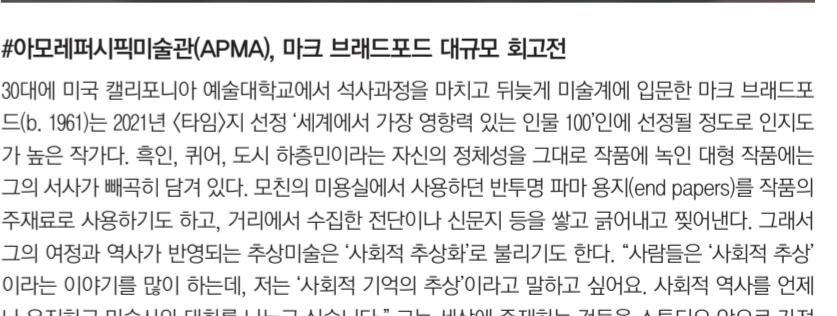
#송은, 한국 작가 그룹전 <파노라마>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한국작가 해외집중 프로모션' 사업의 일환으로 송은과 함께 기획한 <파노라마>전은 동시대 한국 작가들의 다양한 비밀 기지를 엿보는 느낌을 선사한다. 권병준, 김민애, 박민하, 이끼바위쿠르, 이주영, 최고은, 한선우, 아프로아시아 컬렉티브(초원준, 문선아) 등 8팀이 참여해 회화, 조각,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을 풀어냈다. 네일란드에서 앤지니 어로 일하다가 2011년 귀국해 음악, 연극, 미술을 넘나들며 '소리'에 기반한 뉴미디어 퍼포먼스를 기획·연출하는 권병준 작가의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은 지난해 대형 미술관에서 주제로 선정되었던 '소리의 힘' 시리즈에 대한 시유로 이끈다. 미륵의 손바닥을 조각한 '부처님의 하이파이브'는 자유롭게 존재할 수 있는 미륵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다. 사라진 사찰이나 마을 어귀와 들판에서 방치된 채 그저 돌로 존재하는 미륵들은 사진 작업에서 다시 한번 존재를 확인시킨다. 버려졌기에 자유로워진 미륵들은 우리에게 '버려지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 디지털 도구와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혼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한선우 작가는 모공을 연상시키는 살점, 기각진 미리카락 등 파편화된 신체와 인공 구조가 뒤섞인 초현실적 이미지 구성을 자동화된 가사 노동에 대한 한상을 얘기한다. 아프로아시아 컬렉티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청소년간의 교류를 상상하며 작품을 위한 '걸 그룹'을 만들기도 했는데, 어쩐지 마음이 전해진다. 글 김수진(프리랜스 에디터)

전시명 <PANORAMA> 전시기간 10월 16일까지 홈페이지 www.songeunartspace.org



마크 브래드포드 <Keep Walking> 전시 모습(2025).



#아모레퍼시픽미술관(APMA), 마크 브래드포드 대규모 회고전

30대에 미국 캘리포니아 예술대학교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뒤늦게 미술계에 입문한 마크 브래드포드(b. 1961)는 2021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은 작가다. 흑인, 퀘어, 도시, 하층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작품에 녹인 대형 작품에는 그의 서사가 빼곡히 담겨 있다. 모진 미용실에서 사용하던 빈투명 파마 용지(end papers)를 작품의 주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수집한 단조이나 신문지 등을 쌓고 굽어내고 끓어낸다. 그래서 그의 여성과 역사가 반영되는 추상미술은 '사회적 충성화'로 불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사회적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회적 기억의 충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회적 역사를 언제나 유지하고 미술사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스튜디오 안으로 가져와 문을 걸어 잡고 미술사와 한베탱 싸우며 작업한다. 모두 자신의 몸과 기억에서 온 것들이다. 사회적 불균형 속에서 '저자 나 자신이고 싶었다'고 말하는 그는 사실 억지로 평등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 "그냥 제 회화와 그걸 둘러싼 생각을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갔을 뿐이죠. 추상은 저에게 그럴 수 있는 공간을 주었어요. 애써 경계를 밟지 않고, 염길로 비해서 밀힐 수 있는 공간 말이죠." 그 공간에 관객들이 자연스레 걸어 들어왔으면 하는 그의 바람은 전시의 서막을 여는 작품 '떠오르다'에 담겨 있다. L.A. 작업실 주변 거리에서 수집한 부산물을 긴 대형으로 만들어 전시장 바닥 전체를 덮는 회화적 설치물을 관객들에게 마음껏 거닐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그의 서사는 이제 자연재해, 기후 위기, 젠트리피케이션, 자본 권력의 구조를 향하고 있다. 대다수 작품이 대형인 만큼 각각의 스토리도 진실을 밝히는 진중한 다큐멘터리 같다. 20여 년에 걸친 그의 작업 세계를 볼 수 있는 전시는 독일 베를린의 협회프 미술관이 주최한 회고전의 일환이다.

전시명 <Mark Bradford: Keep Walking> 전시 기간 2026년 1월 25일까지 홈페이지 apma.amorepacific.com

Timeless Shine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스톤 장식과 각 브랜드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빛어낸 찬란하고도 신비로운 주얼리 위치의 세계.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워치
로마의 문화유산에서 영감받은 골드빛 모자이크
다이얼, 다이아몬드 베젤과 핑크, 레드 핸즈와
얼리게이터 스트랩 등이 글래머러스한 멋을
베키한다. 6천8백만원. 문의 02-2056-0170
피아제 라임라이트 갈라 워치 지름 32mm 로즈
골드 케이스에 62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핑크 골드 밀라네즈 브레이슬릿을
더했다. 8천50만원. 문의 1668-1874
디올 타임피스 라 디 드 디올 프레셔스 인덱스를
과감히 생략하고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블루 사파이어로 장식해 주얼리 못지않은 화려함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빈클리프 아벨 레이디 페어리 로즈 골드 워치
기요세 패턴의 자개 다이얼에 다이아몬드를
수놓아 핑크빛 밤하늘을 형상화하고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산비로운 요정 모티브를
담았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까르띠에 클래식 언리미티드 워치 기하학적인 옐로
골드 스터드와 유려한 보랏빛 비즈 골드의 결합이
극적인 생동감을 전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쇼메 호텐시아 워치 24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3개의 꽃 장식을 추가한
후 그린 레커 다이얼로 마무리했다. 9백만원대.
문의 02-3442-3359 에디터 김하얀

Romantic Stones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뛰게 하는 컬러풀한 스톤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다미애니 미모사 링 복잡한 형태의 식물 미모사를 메종만의 섬세한 스톤 세팅 노하우로 디테일하게 완성했다. 화이트 골드에 사파이어를 세팅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그라프 3,17캐럿 오픈 컷 루비 링
GUB 인증받은 비가열 베마산 루비가 아름다운 레드빛을 발하는 링으로 주위에 총 161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38개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56-6810 프레드 샹스 인피니 크레이지 8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에 3.2캐럿 페어 컷 그린 사파이어 1개를 세팅하고 양옆에는 총 0.7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80개를 세팅한 포스텐 모티브를 더해 아이코닉한 감성을 부여한 링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불가리 하이 주얼리 이어링 로즈 골드 소재에 총 10.8캐럿의 페어 컷 모가나이트 10개와 총 6.25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20개, 총 0.62캐럿의 라운드 다이아몬드 2개, 총 3.27캐럿의 버프톱 루밸라이트 48개, 그리고 다이아몬드
3.02캐럿을 판타 세팅해 화려하게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6105-2120 부쉐론 판다 링 메종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면서도 주얼리를 넘어 부적과도 같은 의미를 자닌 애니얼 컬렉션 링. 18K 화이트 골드에 총 2.4캐럿의 2백 개
블랙 사파이어, 총 1.79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백83개, 총 0.48캐럿의 56개 자보라이트로 완성한 판다가 3.4캐럿 퀭션 컷 그린 투르말린 1개를 안고 있다. 5천만원대. 문의 02-3479-6028 포엘리토 누도 하이 주얼리 컬렉션 링
6.75캐럿에 달하는 눈부신 라즈베리 컬러 루밸라이트를 센터에 세팅하고 베젤에 2백2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블롭감을 더한 캉데일 링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스티븐 웨스터 저터 버그 링 브랜드만의 위트 있는 감성을
잘 표현한 링으로 옐로 골드에 블랙 오팔레스트와 퀼츠 크리스탈 헤이즈, 블루 애나벨, 스카이 블루 토파즈, 자보라이트 가루와 다이아몬드로 버그 모양을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성정민

2025 F/W Trend Report

이번 시즌 패션 위크는 옷을 넘어 시대의 감각을 담아내는 무대였다. 과거의 화려한 장식은 현재의 트렌드로 재구성되고, 진화한 테일러링과

See-Through Dresses

과감해진 시스루 소재의 변화는 런웨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돌체앤가바나는 레이스와 사忿 소재를 사용한 브라렛, 슬립 드레스로 글래머러스하며 고혹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지방사의 'GIVENCHY 1952' 로고 장식 시스루 캇 수트는 보디 라인의 극선미를 한층 더 강조했다. 과정된 노출 대신 은근히 실루엣을 드러내는 시스루 룩으로 세련된 관능미를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Victorian Ruffles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로맨티시즘이 한층 대담하게 부활했다. 사발은 하우스 특유의 트위드에 러플과 레이스를 겹겹이 더해 클래식한 여성성을 강조했고, 다음은 하이넥 블라우스와 레이스 장식을 더해 귀족풍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발렌티노와 맥퀸은 풍성한 프릴과 다채로운 플로럴 패턴, 그리고 드라마틱한 볼륨의 슬리브를 활용해 런웨이를 장식했다. 고전적 장식미가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온 시즌이다.



Bohemian Fringe

런웨이 위에서 자유와 낭만을 상징하는 프린지가 다시 주목받았다. 걸을 때마다 흔들리며 리듬을 만들어내는 프린지는 드레스나 비단 치즈 스커트에 절묘하게 우러러지며 시선을 사로잡는 역할을 했다. 베르시체는 실버 프린지가 철렁이는 보다른 드레스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에트로는 시그니처인 페인즈리 패턴 드레스에 통 프린지를 더해 보헤미안의 정수를 선보였다. 페라모는 미니멀한 색상에 레드 컬러 프린지를 매치해 걸을 때마다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했다.

FERRAGAMO

DOLCE & GABBANA

CHANEL

FENDI

VALENTINO

PRADA

LOUIS VUITTON

HERMÈS

Fur Evolution

이번 시즌 한겨울 런웨이를 장악한 것은 풍성한 퍼의 질감이었다. 윤리적으로 해석된 시아링은 폭스, 링크, 세이블을 대체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펜디는 롱 코트와 숄, 블루종 등 다양한 퍼 아이템을, 미우미우는 페이크 퍼 스톤에 토토백과 클로슈 모자를 매치해 1960년대 무드를 선보였다. 질 샌더와 에트로는 강렬한 컬러와 그레이 패턴으로 퍼를 새롭게 해석하며 시각적 즐거움을 더했다.



A Symphony of Ribbons

가장 사랑받는 포인트 장식 중 리본은 작년부터 화제가 된 밸레코어의 핵심 요소로, 올해 런웨이 소에서는 개수나 사이즈 및 두께감을 조정해 색다르게 활용되었다. 밸렌티노는 대형 보 장식을 스커트와 재킷에 적용해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강조했고, 프라다는 이번 시즌 리본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구조적인 오브제로 활용했다. 견고한 울과 가죽, 그리고 드레스 위에 더한 리본 디테일은 실험적이면서도 모던한 무드를 완성했다.

The Return of Checks

이번 시즌 체크는 단순한 패턴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도 했다. 프라다는 갈리풀한 타탄체크 코트를 슬림한 팬츠와 매치해 평기한 느낌을 더했으며, 베니사는 전통적인 헤리티지 체크를 새롭게 재해석한 오버사이즈 코트와 머플러를 제작해 클래식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한편 둘 브라운은 헤리본, 아카일 등 여려 종류의 체크 코트를 다채롭게 선보였다.



TREND 10

DIOR MEN

A Reinterpretation of Heritage

브랜드의 역사와 시그너처를 재해석한 무대와 뿐이 눈에 띄었다. 루이 비통은 트렁크 장식과 모노그램 패턴으로 아이코닉한 스타일의 진화를 보여줬다. 펜디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적 공간 '비아 보르고나(Via Borgognona)' 부티크와 상장을 소원해 재현했으며, 구찌는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이한 출스넷 1955 백을 새로운 올트라 소프트 버전으로 선보였다.

Purple Basil

이번 시즌 런웨이를 대표하는 컬러 키워드는 단연 퍼플 바질 (Purple Basil). 단순한 보라가 아닌 허브 바질을 닮은 깊은 톤으로 신비롭고 차분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구찌는 롱 코트와 셋업에, 베르시체는 새틴 드레스와 블라우스, 아우터에 적용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미우미우는 니트와 스커트, 롱 삭스 등 디자인은 아이템으로 풀어냈다. 은은한 존재감을 발휘하는 퍼플 바질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포인트 컬러로 주목된다.



TREND 10

DIOR MEN

Tailoring 2.0

정교한 재단의 진화를 보여준 테일러링이 이목을 끌었다. 디올 맨은 리본, 롱스커트 등을 활용한 수트 디자인을 제작했고, 슬림 수트에 은은한 새틴 라벨을 조르지오 아르마니는 차분한 컬러와 벨벳, 올 플란넬, 트위드 같은 소재로 이탈리아식 테일러링의 진수를 드러냈다. 지난 시즌에 단정한 수트의 본질에 집중했다면, 이번 시즌에는 날렵한 어깨선과 과감한 비율로 한층 진화했다. 에디터 신정임

TREND 10

DIOR MEN

View

어느새 흘러온 그 계절, 그 시간. 그리고 그녀의 가을 패션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LEE SANGHUN



Defined

슬더 플리츠 디테일의 레더
재킷, 플라워 슬립 드레스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왼쪽 페이지)
레드 더블브레스트 코트, 브라운
팬츠 모두 가격 미정 토즈.

트워드 소재의 재킷과 쇼츠
모두 가격 미정 사별.

(오른쪽 페이지)
세보론 더블 코트 가격 미정,
핑크 코튼 셔츠 2백40만원,
핀스트라이프 물리네 올 미니스커트
3백20만원, 앤티크 레더 펌프스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울 소재의 집업 카디건 5백10만원,
슬림 빛 니트 드레스 1백94만원,
나일론 소재의 롱스커트 5백10만원,
트레이크립 어반스톰 스니커즈 1백25
만원, 울 소재의 스카프 4백34만원,
바라클라바 86만원 모두 몽클레르
X EE72 by 에드워드 앤드루스.

(왼쪽 페이지)
울 소재의 페어 아일 패턴 크루넥
스웨터, 터틀넥 톱, 캐버딘 맨조
모두 가격 미정 셀린느.



램 스킨과 캐시미어 소재의
드레스, 글러브, 레더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페이퍼)
더블브레스트 벨티드 코트, 블랙
레이스 틈, 데님 팬츠, 블랙 플랫
슈즈 모두 가격 미정 글로에.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이아영
모델 Nastya, Elsa, Uliana, Arin,
Jordan, Amel, Kamilla, Cristina
(Jennifer Model, Exclusivesoul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글로에 02-6905-3670
시넬 080-805-9628
프라다 02-3442-1830
루이 비통 02-3432-1854
셀린느 1577-8841
에르메스 02-542-6622

몽클레르 X EE72 by 에드워드 앤필 0030-8321-0794
토즈 02-3438-6008

Get The

List

클래식이 어울리는 계절, 가을을 위한 쇼핑 리스트.

PHOTOGRAPHED BY JEONGSEOKHEON



VAN CLEEF & ARPELS
아름다움과 순수함, 충만함의
상징인 연꽃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로터스 컬렉션.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6.81
개ettel을 세팅해 완성한 로터스
클립 펜던트 라지 모델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문의 1877-4128



LOUIS VUITTON
하우스 야카이브에서 발견한
익스카션 백팩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모노그램 캔버스
소재와 장식적인 버클 및
드로스트링, 여러 개의 포켓
등이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매력을 전하는 백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BOTTEGA VENETA
부드러운 실키 카프 레더로
고급스럽고 세련된 감성을
전하며 하우스의 시그너처
놋 디테일을 포인트로 적용했다.
긴 어깨끈으로 숄더, 토트, 크로스
보디 등 다양한 연출이 가능해
실용적인 차오 차오 백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문의 02-3438-7694



BVLGARI
여성스러운 매력을 세련되게
표현한 부채 모티브가 매력적인
컬렉션. 18K 엘로 골드 소재에
블랙 오닉스 주위로 섬세하게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시크함과
동시에 우아함을 부여하는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5백45만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MIU MIU
투박한 스퀘어 쉐이프에 워싱을
넣은 가죽 소재로 빈티지하면서도
순수한 소녀의 느낌을 떠올리게
하는 가죽 톰 헌들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GRAFF
고임 디자인이 특징인 스파이럴
컬렉션의 백글로 더 볼드해진
매력을 자랑한다. 엘로 골드
백글 가운데에 다이아몬드 총
2.26개ettel을 세팅해 포인트를
더했다. 4천23만원 그라프.
문의 02-2256-6810



CHANEL BEAUTY
강렬한 컬러와 빛나는 사인 효과,
촉촉한 퍼니시로 이름난 루쥬 코코
플래쉬의 새로운 컬러 825 비쥬.
은은한 핑크 컬러로 부담스럽지
않고 생기 있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한다. 3g 5만9천원
샤넬 뷰티. 문의 080-805-9638



HERMÈS
동근 토와 큰 굽으로 소녀미를
풍기는 디자인의 새기 50 펌프스.
카프 스킨 소재에 Hapi 버클로
포인트를 주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완성한다. 1백91만원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성정민

튼 다운된 그린 컬러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오버사이즈 테일러드
재킷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Leather Syndrome

깊고 그윽하며 훨씬 더 간결하게. 가을, 어김없이 등장한 남자 레더 아우터.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칼라리스, 스터드 장식, 빈티지
워싱 등이 조화롭다. 지퍼와
스냅 단추를 추가해 입고
벗기 편한 황소가죽 카라테
재킷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긴 소매와 하이 네크라인,
크롭트 디자인이 돋보이는
양가죽 소재 재킷 가격
미정 릭 오웬스. 문의
02-3479-1353
에디터 김하얀

의도적으로 삭제한 고리 없는
지퍼 디테일이 특징이다.
퍼 안감을 적용해 보온성이
뛰어난 카프스킨 소재의
보머 재킷 8백90만원
셀린느. 문의 1577-8841



On The Green

푸른 필드 위에서 깊고 닦은 기량을 펼치기 위해 업선한 골프 액세서리들은 바로 이것.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앙간으로 통기성 있는 메시 소재를 선택하고 쓰고 벗기 편하도록 백그로를 추가한 블랙 & 화이트의 선바이저 가격 미정 온오프, 문의 02-531-1991, 2제의 지퍼와 앞뒤로 추가한
포켓으로 수납력을 높인 더블톱 지퍼 퍼우치 25만원 피레티, 문의 1644-7781. 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실버 리본의 실리콘 2구 볼 케이스 9만8천원 세인트앤드류스, 문의 1670-2807.
브레이드 스트랩에 무광 베클을 더한 남성 벨트 20만원 제이린드버그, 문의 02-546-1996.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하며, 메시 소재와 밴드, 그리고 사이드 포켓을 적용해 리본임에 최적화한 엘로 코튼 양말
6만9천원 아이스버그 골프, 문의 02-2136-5773. 비거리 순위를 놓지 않고 안정적인 타격이 장점인 투어월드 TW767 PX 아이언 가격 미정 혼마골프, 문의 02-2140-1800. 신발끈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링
슈레이스를 적용해 밸런스감을 선사하는 양가죽 소재 인드레아 우먼 슈즈 45만원 아이스버그 골프, 문의 02-2135-5773. 편안한 손목 움직임을 고려해 설계한 슬릿 디테일이 특징인 리스트 프리 글러브
5만5천원 어메이징크리, 문의 02-2135-9174. 캐스트 우레탄 소재의 내단 그립과 핑크 컬러 골프 볼(걸리벌 3개 1세트) 각 가격 미정 테일러메이드, 문의 02-6410-8051 에디터 김하얀

Super Moisture

그 어느 때보다 혹독했던 날씨를 견뎌온 소중한 피부에

회복의 시간을 선물해야 할 때.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아래부터 차례대로) 프라다 뷰티 어그멘티드 스킨 크림
아디토전 스마트 테크놀로지™(Adaptogen Smart Technology™)
를 적용해 피부 본연의 힘을 강화하고 외부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단력 보습 크림 60ml 55만원대. 문의 080-835-0097
아우구스티누스 비터 더 얼티메이트 수딩 크림 특신하고
부드럽게 펴리는 울트라 리치 포뮬러로 자극받은 피부의
빠른 진정을 돋고 피부 장벽 기능을 강화하는 SOS
크림 50ml 43만5천원대. 문의 02-6904-0589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월 드 로즈 액티비에이트 세럼
혹독한 기후에 맞서 피아난 로즈 드 그랑빌의 생명력을 담은
누트리-로사펜타이드 성분과 두 가지 하일루론산 성분을 협유해
풍성한 수분 충전 효과와 외부 자극에 대한 보호 효과를 선사하는
모리미엄 세럼 50ml 55만7천원대. 문의 080-342-9500
라 메르 벨란싱 트리트먼트 로션 미라를 브로스™ 성분을
함유한 프레시 리퀴드 하이드로겔 제형으로 피부 속 피지제거
제거하고 수분만 가득 채워주어 건강하고 균형 있게 가꿔주는
트리트먼트 로션 150ml 26만2천원대. 문의 02-1644-3947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화이트 깨끗리와 하일루론산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해 더 업그레이드된 세럼. 피부 속 수분
장벽을 강화해 강력한 보습 효과를 선사하며 맑고 건강한 피부로
달콤한 시기준다. 50ml 19만6천원. 문의 080-805-9638
라프레리 스킨 캐비아 하이드로 에멀젼 브랜드 시그니처 성분인
캐비아 마이크로-뉴트리언트와 혁신적인 캐비아 하이드로 에센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셀루라 큐酝렉스™를 함유해 밀도 높은 수분과
탄력을 제공한다. 70ml 58만7천원대. 문의 02-6390-1170
랑콤 제니피끄 로션 얼티밋 리퀴드 리페어 세럼 인 에센스
고농축 에센스를 함유한 토너로 스키커에 첫 단계부터 필터를
씌운 듯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며 리페어 효과를 주고 노화
징후를 케어해준다. 150ml 10만5천원대. 문의 080-835-0094
밸몽 프리암 리제네라 II 국물로 손거친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할 뿐 아니라, 지질 복합체로 피부 장벽을 건고하게 만들어
뛰어난 진정 효과를 선사하며 최상의 피부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회복 크림 50ml 42만원대. 문의 070-4352-5203 에디터 성정민



딥티크 시프레 클래식 캔들 사이프러스 향의 상쾌함과 꿀의 따스한 향이 만나
산림욕을 하는 기분을 준다. 190g 10만2천원. 문의 02-3479-6049 라부르켓 씨
솔트 배스 메리골드/오렌지/제라늄 피부를 깨끗하게 세정하고 오렌지 에센셜 오일
등을 통해 피부에 진정과 보습을 부여한다. 450g 4만7천원. 문의 1644-4490
탬버린즈 얼리모닝유 바다 워시 뛰어난 세정력과 더불어 애플민트와 진저 향의
조합으로 탄생한 상큼운 향이 특징이다. 240ml 3만7천5백원. 문의 1644-1246
아베디 스트레스-픽스™ 칸센트레이트 라벤더, 라반던 등의 에센셜 오일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준다. 7ml 4만2천원. 문의 1644-3892 조 밀론 런던 리비아탈라이즈
바디 젤 크림 수분 크림 텍스처로 뻔한 흡수가 장점이며 레몬 감칠, 월계수 오일을
함유해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 200ml 7만3천원. 문의 1644-3753



Relaxing Ritual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며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이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내일을 위한 여유를 불어넣는
나이트 뷰티 루틴.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겔랑 아베이 로얄 스칼프 앤 헤어 유쓰 오일 인 세럼 꿀을 통한 리페어
기술력과 D-핀테놀 콤플렉스 덕분에 두피와 모발 강화에 효과적이다.
50ml 21만5천원. 문의 080-343-9500 롤시땅 퓨리파잉 프레시니스 샴푸
불쾌한 두피 남새는 물론 과다 분비된 유분을 케어한다. 300ml 3만6천원.
문의 02-2054-0500 오리be 세린 스칼프 엑스플리에이팅 스크럽
두피의 죽은 세포, 먼지 등을 제거하고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모발을
부드럽게 가꿔준다. 125ml 8만7천원. 문의 1644-4490



데코르테 플라밍 립 세럼 01 원 백합
추출물 등을 함유해 끈적임 없는 보습
효과와 자극 없는 플래밍 효과를 발휘한다.
7ml 4만2천원. 문의 080-568-3111
끌라드뽀 보떼 프로테ктив 립 트리트먼트
입술 온도에 부드럽게 녹는 텍스처가 남다르며
10시간 이상의 보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g 7만5천원. 문의 080-564-7700
맥 텁글리스 블로우 플래밍 오일 코코넛
오일이 입술에 보습을 채워주고 진저와
멘톨 성분이 입술의 탄력과 상쾌함을
유지해준다. 5ml 3만8천원. 문의 1644-3748
구찌 뷰티 볼 누리씽 위니베르셀 보테니컬
오일과 버터 블렌드를 함유한 무향의
밤 타입으로 건조한 부위라면
어느 부위든 사용 가능. 8g 8만1천원
문의 080-850-0708 에디터 김하얀



버버리 뷰티 브릿 샤인 634
루바브 글로시한 텁밤 제형이라
건조한 입술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마무리해주고 차분한 핑크 컬러라
데일리로 바르기 좋다. 3g
5만7천원, 문의 080-850-0708
_by 에디터 신정임

Editor's Pick

나만의 뷰티 리추얼을 완성해볼 시간.
최상의 컨디션을 선사해줄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YOUNG JI YOUNG

NEW SERUM

오에라 멀티-베네핏
캘리브레이터 동봉된 패드에
적셔 7초 동안 피부에
올려두어 사용하는 제품.
며칠간 부지런히 사용하니
무너진 피부 별롭스가
맞춰진 느낌이다. 30ml
19만5천원.
문의 1800-5700
_by 에디터 성정민



다이슨 오메가 하이드레이팅 오일 독자적으로 개발한
'다이슨 OIL™ 블렌드(Dyson OIL™ blend)'를 함유해
손상된 헤어 케어 오일로 제작이다. 30ml 7만9천원대.
문의 1588-4253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샤넬 수불리마지 렉스트레 립 오일
럭셔리한 립 전용 오일로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는 텍스처가
일품. 7ml 39만원.
문의 080-805-9638
_by 에디터 성정민



NEW CANDLE

토아이 왁스 디퓨저 어그레스틱 태우는 동안
시더우드와 여름 소나무, 어린 애생화의 조화로
푸르른 소나무 숲을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왁스
디퓨저. 80g 2만5천원대. 문의 010-5549-9383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시슬리 선리아 쑤톤 솔레르 양티-아쥬 물과 열, 땀에 강한
자외선 차단제, 홍조류 추출물과 아데노신 등 덕분에 피부
탄력과 스키어 효과는 물론 주름 방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50ml 38만원, 문의 080-549-0216 _by 에디터 김하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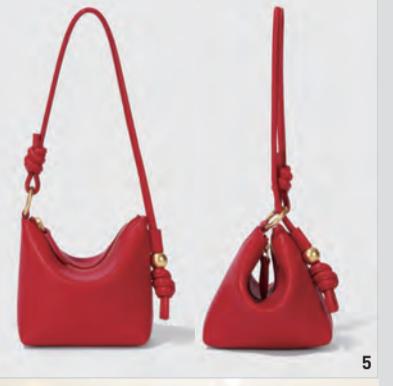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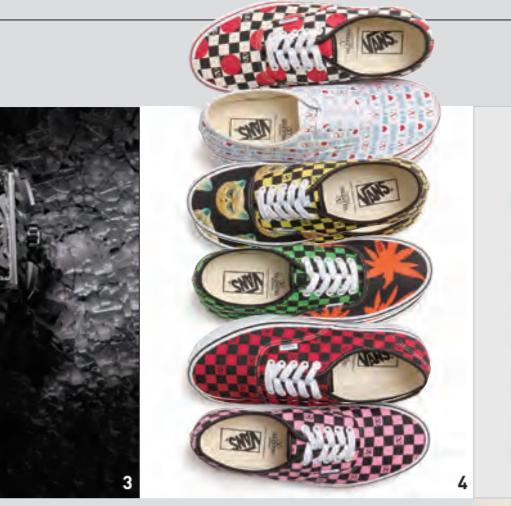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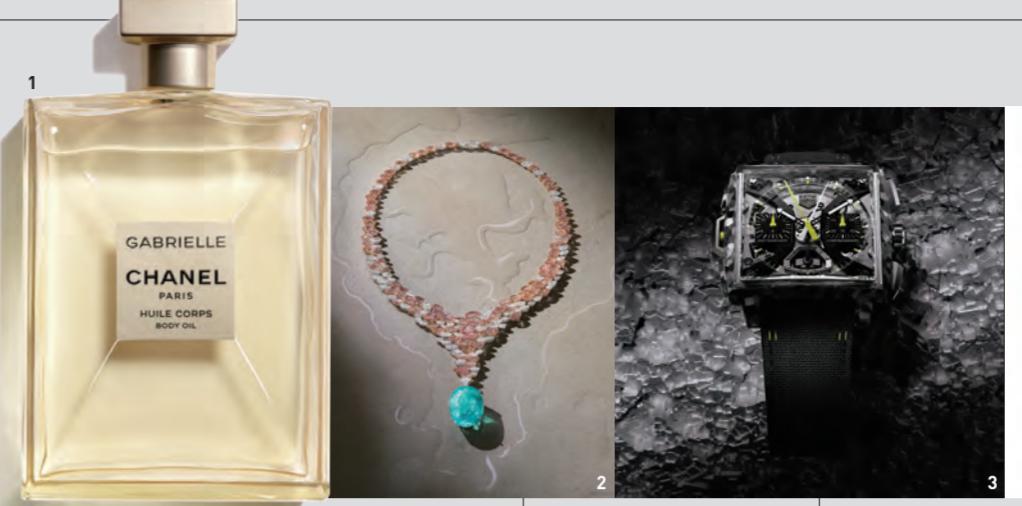


로라 메르시에 트랜스루센트
하이드레이팅 세팅 스프레이
울트라 블러 워터프루프 제형이라
덥고 습한 날씨에 고들인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높여주고
피붓결을 보송하게 만들어준다.
100ml 8만3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 2014 L'Occitane en Provence. All rights reserved. L'Occitane and the L'Occitane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L'Occitane International S.A. and/or its affiliated companies. L'Occitane en Provenc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L'Occitane International S.A. and/or its affiliated companies. L'Occitane en Provenc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L'Occitane International S.A. and/or its affiliated companies.

NEW PERFUME
디올 뷰티 미스 디올
에센스 부담스럽지 않은
페미닌한 향으로
블랙베리의 달콤한 내용이
재스민, 우디 오크와
조화를 이룬다. 50ml
23만1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에디터 김하얀



Showroom

1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넬 보디 오일 샤넬 뷰티
에서 가브리엘 샤넬 보디 오일을 출시했다. 새틴처럼
실기한 제형으로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어 매끈
하게 관리해주며, 스프레이 타입으로 끈적이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되어 기분 좋은 촉촉함과 부드러
움을 선사한다. 문의 080-805-9638

2 다미아니 하이 주얼리 컬렉션 공개 이탈리아 하
이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에서 하이 주얼리 컬렉
션 'Ode All'Italia'를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지중해
해안의 무른 물결, 자연의 장엄함 등 이탈리아 풍경의
대표적인 3가지 요소를 담아냈다. 문의 02-515-1924

3 태그호이어 모나코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
프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태그호이어에서 모나
코 스플릿 세컨드 크로노그래프를 출시했다. 독자
적으로 개발한 그레이드 5 티타늄 합금 소재 'TI-T
ITA'으로 제작한 케이스를 사용했으며, 86g의
무게로 경량성과 견고함을 자랑한다. 문의 02-3479-6021

4 발렌티노 밸렌티노 가라바니 X 반스 컬래버레이
션 밸렌티노에서 반스와 협업해 스니커즈를 출시
했다. 1966년에 처음 선보인 반스 어센틱을 바탕으
로 새롭게 해석해 여성과 남성을 위한 6가지 모델
로 선보였다. 반스의 시그너처 체커보드 패턴에 메
종의 V 로고를 더한 패키지에 제공된다. 문의 02-4655

5 래트 포코 백 찰 북유럽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영
감받은 브랜드 래트에서 포코 백 찰을 선보였다. 상
단 지퍼로 안정감 있는 수납이 가능하며 골드 메탈
장식 디테일이 특징이다. 스트랩에 스토퍼와 원터치
O링이 있어 자유롭게 길이를 조절해 다양한 스타일
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800-5700



6 시세이도 시세이도 바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클립스افت 트린트먼트 A+ 시세이도에서 '시세이도 바
이탈 퍼펙션 인텐시브 클립스افت 트린트먼트 A+'를
출시했다. 레티놀 파생 성분이 아닌 순수 레티놀 성
분과 사플라워레드™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멜라
닌 색소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 기미 생성을 억제
하고, 이미 생성된 기미가 번지지 않도록 케어해 주
를 케어는 물론 미백에 도움을 줌으로써 최상의 피
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80-564-7700

7 포멜라트 이코니카 컬렉션 포멜라트를 상징하는
불규칙한 다이아몬드 세팅 기법과 골드 세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코니카 컬렉션을 선보였다.
강렬한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체인 모티브로
제작된 다양한 디자인의 네크리스, 브레이슬릿, 이
어링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0030-8321-04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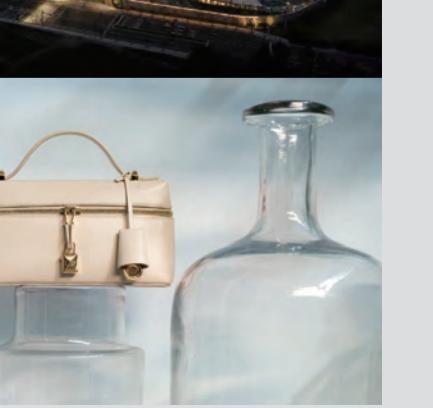
8 반클리프 아펠 플라워레이스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에서 화관을 모티브로 탄생한 플라워레이스 컬
렉션을 선보였다. 틸팅 가능한 스트랩으로 길이 조절이 가
능해 핸드백 또는 크로스 보디 백으로 연출할 수 있
으며, 둥근 세이프로 꽃을 우아하게 표현한 실루엣
이 특징이다. 이어링, 펜던트 등 5가지의 주얼리 피스
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1877-4128

9 키튼 2025 F/W 남성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브
랜드 키튼에서 2025 F/W 남성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Collectors of the Essence of Living'
을 컨셉트로 도시적인 클래식 룩을 전개했다. 코트,
니트웨어, 팬츠, 슈즈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전국 기
관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7-5444

10 시몬스 '신라모노그램 강릉'에서 만나보는 시몬
스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의 매트리스를 이제 신
라모노그램 강릉에서 만나볼 수 있다. 객실에 비치
한 제품은 대표적인 컬렉션, 뷰티레스토드. 신체 움
직임에 단계적으로 반응하는 더블-포켓스프링을 매



12 셀린느 뉴 러기지 백 L23 이탈리언 하이엔
드 패션 브랜드 로피아나에서 엑스트라 백 L23을





SUBLIMAGE
L'EXTRAIT DE NUIT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누이, 강력한 리페어 효과

CHANEL